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KAPEX) 사업” : 라오스 공동조사를 위한 4차 현지조사 및 현지워크숍 개최

1. 출장목적

- 2018년 KAPEX 대상국인 라오스와의 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4차 현지조사
 - 라오스 농업부 농업협동조합국과의 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방안 논의
 - 향후 ODA 사업기획서 작성을 위한 한국 전문가와 라오스 공동조사단 간 협의회 실시
- 라오스 농림부, 지역정부, 유관기관 등과의 KAPEX 공동조사 최종보고 관련 현지워크숍 실시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소속	출장지	출장기간
이운정 전문연구원	국제농업 개발협력센터	라오스 (비엔티안 및 비엔티안 주)	2018. 10. 10 ~ 10. 12 (1박 3일, 여비 1박 2일 산정)
박성재 박사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3. 주요 내용

□ 공동조사 주요 결과 공유

- 첫 번째 사업대상후보지는 비엔티안 수도로부터 62km 거리에 위치한 타상 유기농채소 협동조합임.
 - 타상 협동조합은 유기농채소를 재배 판매하는 조합으로서 총 90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있음. 총 30여개 이상의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매주 두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유기농채소시장에서 농가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음. 양수기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수기는 정부의 30% 보조로 설치되었음.

- 공동시설로는 퇴비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용되지 않고 향후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에 있음. 이 퇴비사는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건축되었음.
 - 이 협동조합이 공동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지 않으며, 농산물 생산보다는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음. 회원들의 예금을 이용해 농기계 구입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조합으로부터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유기농채소 협동조합이 직면한 문제로는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부족, 채소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등 상품화 노력의 부재, 생산 판매 과정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임.
 - 따라서 공동판매를 위한 트럭 등의 운송수단 지원과 생산증대를 위한 양수기와 비가림 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또한 농민들은 생산과 판매단계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없어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 부족함.
- 두 번째 사업대상후보지는 틀라쿰 지역의 첩 마을로 17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벼 협동조합으로 회원들의 총 재배면적은 100ha 정도임.
- 협동조합으로 활동한지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의 70%는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30%는 조합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 군데의 방문지 중에서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음. 또 단순히 회원들이 돈을 모아 필요 시 빌려주고 하는 신용금고가 아니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내어 조합을 운영하는 가장 발전된 협동조합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생산된 쌀을 도정 후 1kg 정도로 소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연간 400톤의 물량을 판매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판매처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대량구매를 하는 기업간 거래처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세 번째 사업대상후보지는 Yai Nachaleuan 지역으로 12년 정도 농민그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역이며 10개의 마을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

음. 주로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1) 농수자원 부족, 2) 병해충 관리 및 3) 저장 및 보관 등 수확후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음.

□ 공동조사 보고서 관련 피드백

<박성재 박사>

- 상황분석의 문제의식을 보면 농산물 유통 문제가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됨. 협동조합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시장경제에 소농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여 중간상인들에게 휘둘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즉 농민들은 시장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상인들과의 거래 교섭에서 힘이 약하여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조직하여 단체행동을 하게 하려는 것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상황 설명에서 농민들이 상인과의 거래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3.2. Issues and Problems”에서 제시한 이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보고서가 제시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농업 인프라 투자, 기계화, 기술지도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즉 협동조합 도입과 발전 정책의 이슈와는 관계가 거의 없어 보임.

- 보고서 “4.1. Relevant Policies and Programs”의 “Establishment of Owner Farming System through Farmland Reform”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산만하고 제목과 일치하지 않음.
 - 제목은 농지개혁으로 자작농체제를 확립한 정책을 말하고자 하고 있으나 내용은 농협의 설립, 진흥청 설립, 농업발전단계 등을 산만하게 설명하고 있음.
 - 주요 내용 중심으로 농협의 설립과 발전,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등으로 제목을 나누어 서술하는 것이 나을 듯함.
 - 농촌진흥청(RDA)이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농협법과 농촌진흥청은 전혀 관계가 없음.

- “5.2. Beneficiaries”의 “Direct and Indirect Target Group”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이 프로젝트의 목표그룹은 지원 대상 지역의 농민, 마을, 지역이고 간접적인 지원그룹은 라오스 농업인과 정부 등이 되지 않을까? 또 “Beneficiaries”도 사실상 Target Group과 같은 것은 아닌지? 같다면 굳이 구분해서 제목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음.
- “Project Components and Outputs”의 서술에서 Component 2와 3은 같은 범주의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Componet 5”는 독립적인 요소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투자를 의미하는 출자금의 조성은 조합원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개발(Component 1)에 포함되는 것임. 여기서는 내발적 지역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발전을 통한 농촌지역의 발전이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촉진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임.
 - Component 5는 constructing an endogeneous development systems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ves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음. Cooperative fund는 협동조합의 출자금 또는 조합원의 투자금이라는 의미보다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자금으로 해석되는데 설명으로 보아서는 이를 뜻하는 것 같지 않음.

< Holger Grages DGRV 라오스 사무소 소장 >

- DGRV는 독일 협동조합연맹으로 라오스에서 협동조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농업협동조합에도 관심이 많음. DGRV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bottom-up 형식의 사업 추진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강하게 추진하는 top-down 형식보다 더 지속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그 이유는 협동조합 자체가 또는 협동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임. 라오스 정부에서는 top-down의 형식 외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구의 기획 및 착수 단계에서 이러한 유관기관들이 참석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함.
-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GRV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라오스의 협동조합 육성에 관심이 많음. 정부 기관, 학계, 국제기구, NGO 등 여러 분야에서의 이해관계자가 있음. 이러한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 시행기관별 역량과 사례 등을 공유한다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Kehmphone Phaackhamkeo ILO 라오스 사무소 매니저>

- ILO에서는 현재 SME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링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클러스터와 협동조합은 각각의 주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면서 협상력, 교섭력 등을 갖게 하는 맥락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현재 농업분야에서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협동조합 모델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4. 일정표(방문기관 등) :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	10.10 (화)	인천	비엔티안	◦ 출국	◦ 출국
2	10.11 (수)	체	재	◦ 비엔티안 농업교육 훈련센터	◦ 현지워크숍 실시
		비엔티안			◦ 공동조사 내용 관련 논의 ◦ 향후 협력방안 (KAPEX 국내워크숍,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및 ODA 사업기획성 작성 관련) 논의
3	10.12 (목)		인천	◦ 귀국	◦ 귀국